

12호 한문연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문재원
전 화 051-510-1882 팩 스 051-581-5655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051-510-1932

Contents 01 | 인문 02 | 학술활동 03 | 사업 04 | 학술지 05 | 구성원 동정 06 | 신간 소개 07 | 알림


人紋

“ 장자상속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

얼마 전 교육분야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역거점 국립대간의 예산 분배를 두고 대통령은 “똑같은 손가락인데 왜 엄지손가락에만 몰빵”하느냐고 질문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처방전이다. 지방에 만들려는 9개의 서울대가 대통령이 비아냥거렸던 또다른 엄지손가락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이었던 장자상속제가 균분상속제로 바뀐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역사에서 장자상속제는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이는 기존 질서의 중심축이었던 양반제가 해체되던 시기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양반들이 가문을 지키는 방편으로 제사와 재산을 장자에게 ‘몰빵’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죽든 살든 고려하지 않았다. 일제 말 전시체제거나 한국전쟁 때 남성의 부재가 현실화되자 장자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산업화시대 장자는 위기의 집안을 재건할 주인공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다.

새로 탄생할 9개의 서울대가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릴 구체적인 경로가 보이지 않아 더 걱정이다. 기존의 서울대 같은 공룡이 9개나 더 만들어져 ‘장남 대학’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9개의 서울대에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한다. 서울대 안에 또 다른 서울대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장남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린 자식 취급하던 우리의 과거가 겹쳐 보인다.

우리 학교는 특성화 분야로 ‘SI 첨단 모빌리티’ 구상안을 내걸었다. 벌써 교내에서는 인문사회계의 소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인문·사회·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원(가칭)이 설립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통합해서 덩치를 키우면 서울대 연구소가 될 수 있을까? 행정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구성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 여건이 마련될까? 무엇보다 이 연구원의 생명력은 얼마나 될까. 요란스럽게 등장했던 대학정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과거를 볼 때 이 또한 예측 가능하다. 



학술활동

공동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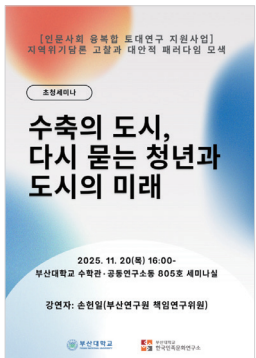
주제: 근현대 울산의 공간과 사회 변화



일시: 10월 17일(금) 13:00~18:00
장소: 울산대 건축관 208호
주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울산 역사연구소·울산대 역사문화학부

초청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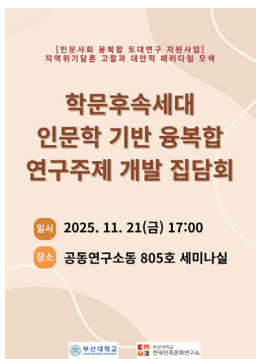
주제: 수축의 도시, 다시 묻는 청년과 도시의 미래



일시: 11월 20일(목) 16:00
장소: 부산대 수석관·공동연구소동 805호 세미나실
강연자: 손헌일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학문후속세대 인문학 기반 융복합 연구주제 개발 집담회

주제: 지역위기담론 고찰과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일시: 11월 21일(금) 17:00
장소: 부산대 수석관·공동연구소동 805호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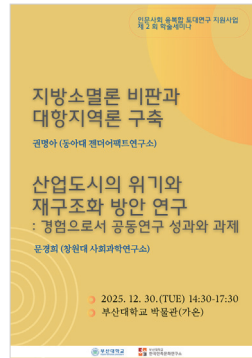
연구간담회

주제: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래지향 아젠다 발굴

일시: 12월 3일(수) 10:20
장소: 공동연구소동 세미나실

학술세미나

주제: 지역위기담론 고찰과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일시: 12월 30일(화) 14:30~17:30
장소: 부산대 박물관 가운
발표: 권명아(동아대 젠더어팩트연구소)-지방소멸론 비판과 대항지역론 구축
문경희(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산업도시의 위기와 재구조화 방안 연구

사업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명: 피란수도 부산유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 (2025 비교과 프로그램)

모집기간: 2025년 10월 15일(수)~11월 2일(일) 24:00까지
운영기간: 2025년 11월 4일(화)~12월 5일(금) (5주)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34호(10월 31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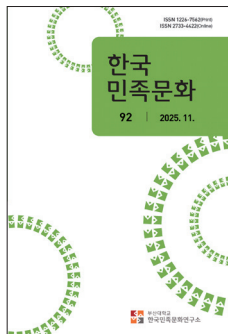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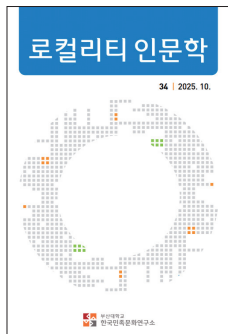
1. 최천집·홍은숙, '삼경 체험의 길', 인문학으로서의 의의
2. 김옥선, 로컬의 문학적 기록 전환과 로컬리티
3. 박은태, 외국인 여행기를 통해 본 개항기 부산의 공간 구조와 근대성
4. 문재원, 부산 미래유산 제도의 쟁점과 정체성 정치
5. 강비아·이영민, 한국의 '글로벌 초문화 가족'과 트랜스로컬리티의 실천
6. 이경일, 이탈리아 내 냉전 구도의 형성과 시칠리아 마피아- 기민당 연합

『한국민족문화』 92집(11월 30일 발간)

1. 양순임, 한문 기원 한자어의 음운현상-『三峯集』 출현 한자어를 대상으로
2. 김광섭, 조귀명 '추기동협유상'의 이질적 요소와 그 결합 원리 연구- '기(奇)' 개념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학술지

3. 한길로, 한말 의병 이조승의 서행(西行) 노정과 공간 인식 고찰-『서행일기(西行日記)』를 중심으로
4. 이희원, 한국전쟁의 중립국행 포로 수기로 보는 제3지대의 불/가능성
5. 김선기,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寺位田) 소유와 경영 양상
6. 손현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수업 사례 연구- 김춘수의 「꽃」을 중심으로
7. 차윤정, 한국 문화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서의 소설 『마당깊은 집』 읽기- 한국의 관념문화를 중심으로
8. 김남정, 로컬리티 기반 액티브 러닝 한국 문화 수업의 교육적 효과-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이해와 지역 적응을 중심으로
9. 조윤경·박은미·이영희,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K-문화융합 학과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구성원 동정

임명

연구소

구분	성명	소속	발령기간	발령일	비고
운영위원	김홍수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25.12.11.~ 2027.12.10.	2025.12.11.	재임명
특별연구원	윤지혜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24.12.12.~ 2025.06.09.	2025.08.05.	신규 /소급 발령
객원연구원	류지석	(사)문화공간 봄	2024.12.12.~ 2025.06.09.	2025.11.01.	재임명

『한국민족문화』 학술지

구분	성명	소속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편집위원	권정원	한문학과	22025.11.01.~ 2027.10.31.	2025.11.01.	신규
	남호현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면직	2025.11.01.	

『로컬리티 인문학』 학술지

구분	성명	소속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편집위원	이상봉	통일한국 연구원	2025.11.12.~ 2027.11.11.	2025.11.12.	재임명

지역서·논문

- 문재원, 「부산 미래유산 제도의 쟁점과 정체성 정치」, 『로컬리티인문학』 34, 2025.10.
- 이주경, 「지방 분권의 역설-지방 자율성과 갈등 지속의 메커니즘」, 『한국정치학회보』 59(3), 2025.09.
- _____, 「아베 시대의 지속이 낳은 정치적 지각 변동」, 『JIS일본리뷰』 74, 2025.11.
- _____, 「일본 저출산 정책의 표류구조: 이차원 저출산 대책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7(4), 2025.12.
- 장하원, 「사회성 만들기의 과학: 자폐증 치료에서의 몸, 사물, 실천」, 『과학기술학연구』 25(3), 2025.11.

학술대회 등

- 문재원, 계명대 국내학술대회 “구술생애사로 바라본 지역 여성의 삶 그리고 삶의 생산” 발표(2025.10.24.)
- _____, 경북대 HK3.0 국내학술대회 “지역학연구에서 로컬리티연구의 성과와 한계” 발표(2025.10.31.)
- 이주경, “다카이치 내각 발족과 일본 극내정치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2025.11.17.)
- _____, “다카이치 정권 발족과 최근 과학-산업정책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난제 혁신전략 연구 정책 자문(2025.12.15.)

연구소 방문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 및 문학부 교수, 일본 학술원 회원(2025.10.21.)

연구소 MOU체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상호협력협약(2025.11.28.)

신간 소개

동물농장

조지 오웰 지음 | 이수정 옮김·배윤기 해설 | 코너스톤 | 2025.04.

1984

조지 오웰 지음 | 박유진 옮김·배윤기 해설 | 코너스톤 | 2025.04.



조지 오웰은 어쩌면 지구촌 어디서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몇 안 되는 영국 작가일 것이다. 그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는 영국에서 여전히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오르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국내 출판사 코너스톤은 두 책을 각각 1945년, 1949년 영국 초판본 표지를 그대로 옮겨 지난 2025년 4월 8일 다시 출판했다.

오웰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먼저 미 군정의 반공 심리전을 위한 두 책의 번역 보급이었고, 다음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어진 독재 정권들의 반복 반공 노선에 힘입어 청소년 필독서 목록에의 고정이었으며, 역설적으로 전체주의 정권들이 권장하는 도서가 됐다. 이를테면 미안마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독재 정권들은 오래전부터 여전히 금서로 지정해 놓았던 현실과 한국은 반대였다. 물론 수십 년 세월 동안 권력 욕망과 독자 수용의 주파수가 얼마나 맞춰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웰은 '반공 작가'로 유행했지만, 작품은 반공 권력이 피하는 일차원적 내용을 넘어서고, 오히려 권력 일반, 특히 전체주의적 독재 권력 풍자와 비판임이 어렵지 않게 포착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말 출판사로부터 두 작품의 해설을 부탁받고 1주일 정도 지나, 한국의 권력 돼지들 사이에서 수십 년 만에 전제 정치의 망령이 되 살아났다. 소설보다 더 알곳은 인간 세상이다. 미국에선 한국보다 앞서 왕정복고를 꿈꾸는 권력자가 '대안적 사실'을 주창했고, 참신하게도 기성 언론의 권력 비판을 모두 '가짜 뉴스'로 단정하며 올해 재집권했다. 물질과 제도의 역사는 겉모습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는 권력을 향한 동물적 욕망에 반복적으로 휘둘림의 증명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같다.

인간은, 권력 앞에서 결국 패배한다더라도, 끊임없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두 작품은 웅변한다. 작품들이 전사하는 권력의 본성과 그에 대한 해부는 현대 문명이 가져오는 스마트한 우민화를 우려하는 독자들에게 명쾌한 권력 이해로 안내한다. 두 책이 아직도 거듭 출판되는 이유다.

탈주택-공동체를 설계하는 건축

아마모토 리켄·나카 도시하루 지음 | 이정환 옮김 | 안그래픽스 | 2025.02.



아마모토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판교하우징(판교 타운하우스, 2010), 강남하우징(세곡동아파트, 2014)을 설계하였다.

1가구 1주택의 주거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으로부터 직수입된 노동자주택 모델에서 시작되었다. 임금노동자 가족, 즉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하나의 주택에 사는 방식이다. 노

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주택이었기 때문에 특히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하였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생활, 보안이 철저한 밀실 주택은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 오늘날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도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 책은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아마모토는 커뮤니티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핵심은 1가구 1주택 방식이며 이것의 밀실성, 폐쇄성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즉, 집을 고립된 사적 공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커먼 데크, 커먼 필드, 옥상 텃밭 등을 배치하여 판교하우징과 강남하우징을 설계하였다. 판교하우징의 경우, 커먼 데크를 면한 현관홀은 사방을 유리로 마감하여 밖에서 그대로 들여다보인다. 입주주민들은 커먼 데크와 현관홀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접대를 위한 응접실 때로는 갤러리, 카페, 음악실 그리고 테라스, 플랜터, 캠핑공간 등으로 사용한다. 입주주민들끼리 의논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이웃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이다. 집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해야 하며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의 삶의 방식에 맞춘 유연한 주거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미래 주택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알림

1.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는 매년 3회(3·7·11월),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4·10월) 발간됩니다.
2. 초청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AI 도구 활용 가이드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수학과·공동연구소동 207호
발표자: 김서윤(부산대 디지털인문학센터 계약교수)